

2025학년도 최종 합격 수기

이름		희소/샘플러스 ID		핸드폰번호	
----	--	------------	--	-------	--

● 응시정보

응시과목	미술	응시지역	경기	응시횟수	2
임용시험 준비시기	30대 초반	합격 준비기간	2년 4개월	시험준비 병행여부	올인

● 합격점수

1차 합격점수	교육학(교직논술) [16.67]점 / 전공(교육과정) [54]점 = 합 [70.67]점
최종 합격점수	[156.06]점
가산점	[0]점 (가산점이 없을 경우 '0' 을 입력해 주세요.)

● 합격수기 작성

작성 예시를 참고,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꼭 아래의 문항에 맞춰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소개

저의 전공은 응용미술교육과이고, 사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대학생 막학년에 노랑진 학원에서 임용 기본 이론을 듣고 도망갔습니다. 졸업 후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30대가 넘어서 교사의 꿈을 잊지 않고 돌아와 어려워도 한번 부딪쳐보자며 작년부터 노랑진에서 자취하면서 수험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초수에는 희소에서 위상 미술 수업을 듣고 1차를 합격하였는데 최탈하여 다시 희소 위상 미술과 함께 도전한 끝에 올해 재수에 성공하였습니다.

저의 모의고사 성적 변화를 적어보자면, 초수 때는 기억상으로, 40~55점 정도를 유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재수 때는(남아있는 기록만 적어보자면) 4월 모의고사에서는 25등을 하였고, 5-6월 1주차-5등/4주차-7등/7주차-7등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모의고사때 1등을 하였고, 8월 8주차 1등, 9월 1주차 2등, 3주차 9등, 5주차 2등(수정됨)을 하여 계속 지속적으로 등수가 상승하였습니다.

저의 학습양식은 장독립형 + 속응형(충동형)입니다. 구조화를 잘하고, 쓰면서 암기해야 잘 외워 집니다. 나름대로 메타인지를 잘 발휘하는 편이라 다른 사람의 공부방법보다는 저만의 공부방법을 찾아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유형입니다. 속응형(충동형)이기 때문에 올해 실제 시험에서 아

주 기본적인 문제 실수(ex.A형 10번에서 밑줄 친 부분만 읽고 밑줄 친 부분 앞의 '거친'을 읽지 못하여 비백법을 유백법으로 써버리는 말도 안 되는 실수 등)를 7점 가까이 하였지만, 평소에 그래도 높은 성적을 유지하며 준비하였기 때문에 1차를 1배수 안에 드는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실수를 자주 하시는 학습 양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고득점을 목표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의 mbti는 ENFJ입니다. 사람을 매우 좋아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초수 때는 공부에만 집중하겠다면서 스터디원과도 사적인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후회하였습니다. 2차는 지역 시험 경향 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양한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미리 정보를 얻어 재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매우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수 때는 많은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저의 최탈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였고, 저도 좋은 정보를 얻어가며 으쌰으쌰 준비한 결과,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0^

2. 시기별 교육학 학습방법

초수 - 1~6월 이론 강의 듣고 복습, 스터디x

7~11월 문풀 강의 듣고 암기, 스터디x

재수 - 1~6월 스터디만 진행

7~11월 문풀 강의 듣고 암기, 스터디o

교육학 공부 tip :

1. 저는 대부분의 교육학 내용을 **두문자 청킹법으로 암기**하였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많은 범위의 교육학 내용을 빠른 시간에 암기하기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주요 내용들을 앞글자나 대표글자에 동그라미 쳐서 외우기 쉬운 순서로 변형하고 두문자를 만들어 표나 제목 옆에 크게 써놓고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반복해서 두문자만 외운 후 내용과 연결시켜 식사 때에도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암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4달 정도면 시험 볼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6월에 이 작업을 빠르게 해놓을수록 모의고사로 연습하기 편해집니다. 저는 초수 때는 시험 직전 막판에 급하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막판에 전공에 집중할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후회했습니다. 되도록 교육학은 6월 전까지 빠르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 임상장학 특징 - 쌍수친자('수'업분석에 중점, '쌍'방향 동료관계, '자'발적 노력, '친'밀한 인간관계) 유의점 - 대필평객(상호'대'등한 관계, 장학의 '필'요성 이해, '평'가 지양, '객'관적 자료 제공)

2. 초수 때는 강의를 듣는 것이 좋지만(인출 스터디는 해도 좋고 안해도 상관x), **재수 때는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 상태라면 인출 스터디로만 진행해도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수 기간 동안에는 인터넷 카페에서 타과목 선생님들을 구해서 **일 주일에 1회** 스터디룸을 잡아서 **3시간** 동안 교육학 **인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3. 교육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전공에 힘을 실는 것이 이전보다도 더 유리해졌습니다.** 교육학 문제가 점점 지엽적이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주로 다루어지지 않던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가령, 작년 CAT나 온라인 수업 상호작용 유형, 학운위, 이번에 기출된 교육평가의 기본 전제나 카츠 등) 이를 모두 공부하는 사람은 교육학에서 물론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 보통 이를 모두 다 정확히 알고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저의 경우 카츠나 교육평가 모두 틀려서 16점 이하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부분인정 점수로 0.67을 더 받았습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이렇게 모르고 써도 점수를 받는 사람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남들도 대부분 다 같이 모르는 문제가 출제 된다면 채점이 유하게 이루어져 공부를 안 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공부를 해도 변별력이 별로 없으니** 이런 지엽적인 부분까지 모두 공부하는 시간보다는(학원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기본적인 교육학 공부는 하되) 차라리 전공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시기별 전공 학습방법

초수

- 1) 1~2월 - 기본서 내용을 표로 작성해보거나 백지에 옮겨써가면서 이해하며 구조화하기
- 2) 3~4월 - 심화서 키워드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암기, 인출(스터디 이용)
- 3) 5~6월 - 토요일 수업 복습(모의평가 8문제+주요기출문제) / 심화서 단권화 / 기본서 + 심화서 회독 및 인출
- 4) 7~8월 - 모고 문제 복습
- 5) 11월 - 모고 문제 복습 + 단어장 만들기(수첩에 모르는 단어들 모음집 만들고 반복 암기) + 최종 정리하기(확실하게 모른다고 생각하는 내용들만 따로 정리하고 암기)
- 6) 12~1월 - 2차

재수

- 1) 2월 - 마음 회복에 주력, 부족했던 부분 성찰하고 앞으로 보완할 계획 세우기
- 2) 3~4월 - 기본 + 심화 이론 묶어서 하기 (용어사전, 미학 등 시간이 필요하거나 암기나 이해가 부족했던 공부 병행)
- 3) 5~6월 - 토요일 수업 복습(모의평가 8문제+주요기출문제) / 윤진 교수님의 필독서 수업 복습(모르는 내용 추출해서 따로 정리하고 암기) / 백지쓰기
- 4) 7~10월 - 모고 문제 복습
- 5) 11월 - 모고 문제 복습 + 단어장 만들기(수첩에 모르는 단어들 모음집 만들고 반복 암기) + 최종 정리하기(확실하게 모른다고 생각하는 내용들만 따로 정리하고 암기)
- 6) 12~1월 - 2차

4. 2차 시험 학습방법(면접, 수업실연, 실기 등)(저의 개인적 경험과 의견을 포함합니다.)

- 1)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저는 평소에 주변에서 면접은 문제 없다고 할만큼 인풋을 열심히 한 상태였고 시책 분석도 열심히 했고,, 말하는 것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장지연 교수님께서 모의평가 때 "시간까지 오바해서 6점은 나갈 것이다"라고 예측하셨습니다...놀랍게도 말씀하신 점수 그대로 받았습니다..ㅠㅠ단기간에 말하는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웠나봅니다...ㅠㅠ 저는 항상 길

게 말하는 습관이 있는데 초수때도 시간 초과로 즉답형 2개를 모두 답하지 못해 8점 감점 되었고, 올해는 모두 답하였으나, 마지막 다짐을 말하는 과정에서 한문장 말하고 시간 컷이 되어 그런지 또 좋은 점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짐은 시간이 많이 남았을때 말하고, 중간에 짤릴 것 같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2) 수업실연 - 감점 1점 정도 받았습니니다. 마지막 순회지도가 개별지도인데 모듬지도로 했던 것 같아서 조건이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망했다 싶었는데 예상보다 잘 받았습니니다..! 윤진 교수님께서 잘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결과도 잘 나와주어서 깜짝 놀랐습니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기 수업실연의 팁은 학생의 경험을 활용해서 상호작용(단순히 질문하고 oo이가 ~라고 해 주었어요. 가 아닌, 교사의 공감과 경험이 담긴 피드백과 계속 핑퐁하며 이어가는 대화까지를 포함함)을 잘 하면서 학생이 재밌어할 분위기 신나는 수업(누구도 즐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건을 잘 지키며 수업 구조화를 잘 하는 것입니다.

초수 - 문제가 감천마을 벽화 도판으로 동기유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하게 구상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교실 뒤에 게시판이 초록색으로 비어있는겁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갑자기 얻어서 구상지를 덮어두고 동기유발을 즉석으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두 뒤를 돌아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그쵸, 게시판에 흰 천이 덮어져 있어요~선생님이 쉬는시간에 흰 천을 덮어놓았답니다~ 느낌이 어떤지 우리 oo이가 말해볼까요? 썰렁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하~원래 우리 5반 여러분이 그려놓은 작품들이 붙어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서요? 그러네요. 선생님도 선생님의 작품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서운한 기분도 들면서 분위기도 어때요? 썰렁한 느낌이 들 것도 같네요. 그럼 뒤에 앉은 키큰 □□이가 어서 한번 떼 줄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봅시다. 느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해볼 사람? 오~그쵸! 교실 분위기가 활기차졌어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교실 분위기가 알록달록 살아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미술 작품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답니다. 이것을 미술 작품에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다 함께 화면 한번 볼게요! 여기 어딘지 아는 사람? (상호작용 이어가며 흰천->게시판의 변화와 콘크리트->벽화의 사례 비교)"

재수 - 동기유발 도판이 풍선같은 뚱뚱한 자동차가 나왔고, 학생의 경험으로 동기유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경험에 접목시키기 위해 "우리 7반은 어떻게 등교하나요? 걸어서? 또? 오 우리 oo이는 버스를 타고 등교한다고 하네요."라고 하면서 대화를 열고, 버스가 하늘을 난다고 상상해보자는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선생님도 버스가 날아간다면 창문 밖의 새랑 대화를 나눠보고 싶네요"등... 다소 어이없는(?) 내용으로 수업의 분위기도 살려보고자...했습니다. 이걸 이제 뚱뚱한 자동차의 조형요소인 양과 연결시키면서 왜 무거운 자동차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등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경향의 재미있는 주제들이 아닌 조형요소와 원리가 주제로 나왔다는 것은 '재미있게 수업하는 능력은 동기유발에서 보겠다. 전개1 부터는 주어진 조건에 맞게 수업의 구조화를 잘할 수 있느냐.' 라는 의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개1은 구상시간에 미리 판서할 표를 그려 구조화를 정확히 하였습니다. 조건이 모듬별 발표여서 한 모듬에서 한 작품씩 조형요소 기준을 분석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가지 그림 표를 빔프로젝트로 칠판에 썼다고 가정하고 네모를 그린 후, 밑부분에 조형요소와 원리를 기준으로 양, 색(?), 질감(?) 요소가 잘 드러나는지를 ○×로 표시하고, 애매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다 함께 이유와 함께 말할 수 있도록 토론한 후 △로 끌어내어 판서하였습니다. (기준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성장조가 자코메티의 작품에 대해서 조형요소와 원리 뿐만 아니라 작품을 보며 들었던 느낌까지 너무 재미있게 발표해주었어요. 성장조가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볼까요? 양이 어떻다고 했죠? 있다고 했어요! 성장조가 양이 있다고 해 주었는데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 사람이 있나요? 오, oo이, 왜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입체인 조각이니까 평면 그림보다는 양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oo이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나요? 응, □□이! 아, □□는 자코메티 작품

이 뻘뻘 마른 사람을 표현한 것 같아서 우리 아까 봤던 뚱뚱한 차에 비해서 양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oo 이와 ooo의 서로 다른 두 의견 모두 이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러면 두 의견 모두 맞는 내용이니까 o 가 아니라고 할수도 없고 x가 아니라고 할수도 없겠죠? 그럼 우리 여기다가는 세모표시 해볼까요~!? 세모표시(판서함) 이후 순회지도 끝나고 시간남아서 수업을 하고 오늘 수업에서 배운점, 느낀점 나눔하기를 실행하였습니다. 교사가 수업나눔하듯 학생들도 배움나눔을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는데 시간상 구체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한명 정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3) 수업나눔 - 엄청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의외로 소수점 깎였습니다! 자신의 수업에서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도록 자신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 저는 학생의 배움중심 수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기유발에서 학생들이 삶의 일상적인 경험의 한 장면으로 떠올릴 수 있는 등교길을 활용하였습니다.(이것은 실제 제 답변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건을 지켰음을 어필하였더니 심사위원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 실기 - 저는 작년 실기 점수를 거의 최하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점수로 최탈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두 과목 모두 비전공으로 실기 점수를 10점 끌어올려서 고득점하고 합격했습니다. 저의 드라마틱하고 자세한 실기 노하우는 제 개인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1898a>에 작성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실패의 이유와 올해 성공의 이유가 자세하게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공부 전략(저의 개인적 경험과 의견을 포함합니다.)

1. 컷라인이 아닌,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초수 실패 원인은 '1차 합격만 하자. 1차만 합격하면 2차는 어떻게든 합격하겠지. 2차 뒤집기 성공사례도 많다고 했어.'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차가 커피라면, 2차는 티오피야.'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2차는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해도 뒤집기가 결코 쉽지 않은 영역들이기 때문입니다. 뒤집기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매년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가 되기로 참 불안정하고 1차 시험치고 합격자 발표까지 약 2달 반의 시간을 가슴 졸이면서 어떻게든 붙어 보려고 모든 걸 쏟아서 안간힘을 다했는데 결국 최탈하였을 때에는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 모의고사 점수가 1차 컷 부근에 있을 때 만족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닌, 초고득점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종료 시 까지 많은 시험들을 치면서 큰 실수가 한 개도 없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변별을 위해 실수를 일부러 유도하는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실수를 한개도 안 하기가 어려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말 높은 점수를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최종합격하는 데에 덜 불안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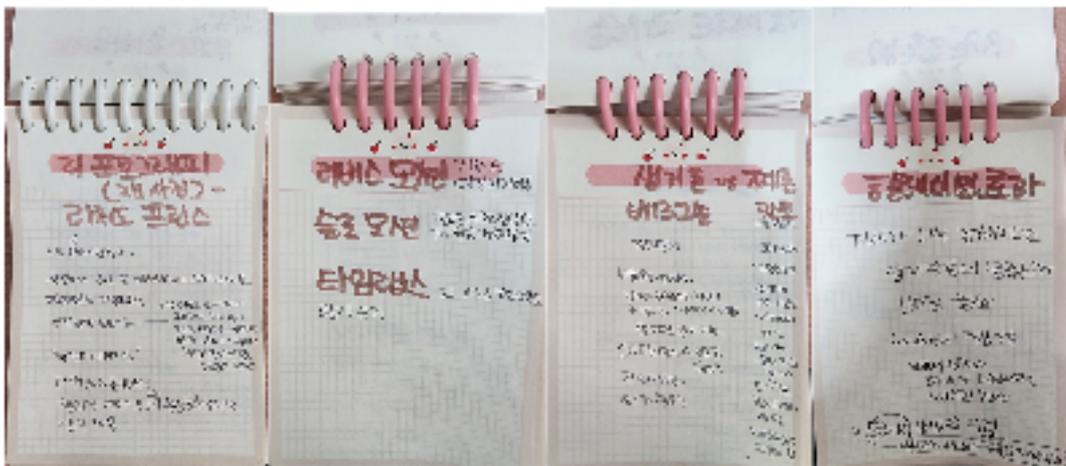
2. 변별이 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차 : 전공 / 2차 : 실기/면접

1차 예시 - 교육학(20점)보다는 전공(80점)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어떠한 과목도 아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차 예시 - 실기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실기>면접>수업실연>수업나눔 순으로 집중) 실기와 수업실연+수업나눔이 각각 30점이고 면접이 40점을 차지하지만, 수업실연은 5-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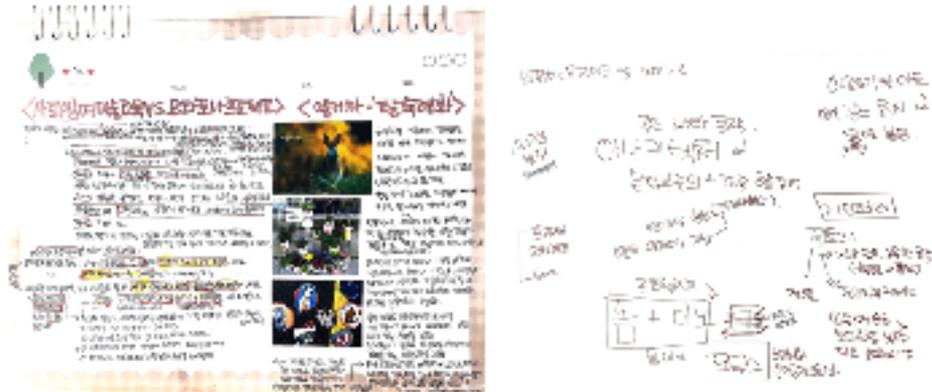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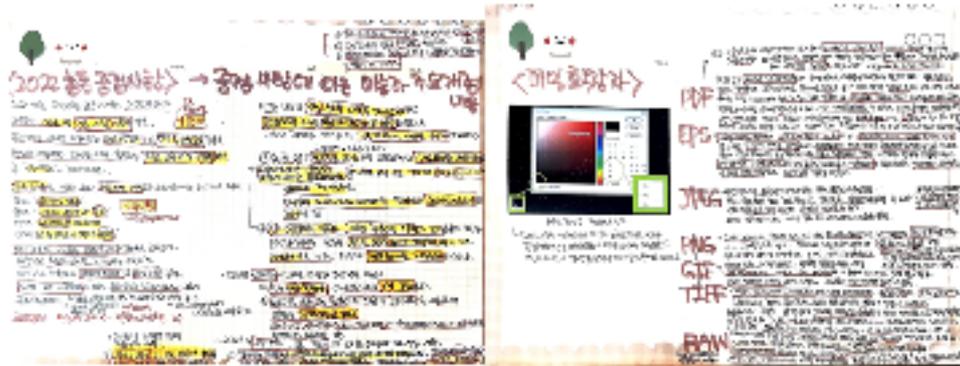
차이(14~20점), 수업나눔은 3점 차이(7~10점), 면접은 8-12점 차이(28~40), 실기는 15점차이(14점~29점)로, 받을 수 있는 점수 간의 차이는 실기가 가장 큼니다.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3. **마지막 3주 동안은 내가 모르는 용어만을 모아놓은 단어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3주에 전체를 훑어야 시험에서 기억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 1년동안 본 것 전체를 3주만에 어떻게? - 단어장을 필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험 경향이 기입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답이 딱 떨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초수때 위상교수님께서 시험보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책을 보면 거기서 나온다는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볼 단어장을 만들어서 시험당일 새벽에 아버지 차로 시험장에 가면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위상미술에서 다루어 주었던 리포토프래피가 적혀있었고, 리~처드 프린스니까 리~포토프래피야~이렇게 중얼대면서 외웠었는데 출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추지 못한 문제였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이 문제를 맞아서 컷플 0.67로 1차를 붙었었습니다. 이 문제를 맞추지 못했다면 0.33점 차이로 1차도 붙지 못했을 것이고 2차 경험도 못해봤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저는 아직도 이게 신의 한수였다고 봅니다. 재수인 올해도 직전에 본 단어장에서 여러 용어가 출제되었습니다.



4. 모의고사는 적중률이 높은 강사의 문제를 복습만 완벽하게 잘해도 1차 합격은 대부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상미술 설명회에 갔었는데 적중 100프로라는 말에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서 적중 근거를 보니 유사적중과 적중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복습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상 모의고사 문제를 분석할 때 유사적중 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여 관련있는 것까지 함께 공부한다면 유사적중까지 대비할 수 있어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시험문제를 풀면 아예 손도 못덜만큼 처음보거나 모르는 문제는 몇 어려운 용어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학원 모의고사의 적중률을 이용하는 저의 방법은 모의고사 복습을 위해 복습 공책을 따로 만들어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습 공책 한 페이지에는 문제의 취지를 위에 크게 적고, 그 밑에 도판들을 붙여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문제에 관련하여 공부한 내용들과 답안을 적어 포인트 단어에 형광펜을 치면서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복해서 한눈에 모의고사 내용을 복습하기 편하고 눈에도 잘 보이면서, 단권화도 쉽고, 쓰면서 공부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시험 직전에 내용을 다시 물었을때 5-6월문제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초수(수기로

작성), 재수(태블릿pc로 작성) 모두 이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초수 때 내용을 재수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오래 기억에 남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방법에서 도판은 위상 미술에서 매회 모의고사에서 제공하는 도판모음을 점심시간에 오려서 사용하거나 태블릿pc로 도판모음 사진을 찍어서 잘라 활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꼭 문제의 정답만 복습하는 것이 아닌 관련 개념들을 꼼꼼하게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암기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르는 것, 그냥 모르는 것을 머릿속에 반복해서 담아나가는 과정입니다. -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서, 심화서에서, 모의고사에서, 단어장에서 애매하게 알거나 잘 모르겠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알 때까지 반복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전체 범위 표만들기 서브노트는 비추입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눈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므로. 하지만 자신이 어렵거나 모르는 것들만 정리해서 모아놓은 노트 하나 만드는 것은 강력 추천합니다!!

6. 이해가 갈때까지 쉬운 용어로 말해보기 - 자기 교수법을 사용하여 이해가 됐다 싶을 만큼 자신을 가르쳐봅니다.

이해가 갈때까지 쉬운 자료로 찾아보기 - 유튜브, 인터넷...필독서는 참고용(이해를 돕는 수단) 반드시 심화서에 있는 문장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내 말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1.판화의 과정이 어렵다면? - 유튜브 판화작업 영상 과정과 수업 때 판서한 과정 용어를 연결시켜보면서 복잡한 과정 이해하기) (ex2.칸트의 보편성과 필연성의 차이를 모르겠다면?-구글링과 쉽게 철학을 소개하는 유튜브 참고해서 임용교재에 나와있는 어려운 말을 이해하기)

7. 스터디 - 이질적인 모둠 구성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ex. 장수/재수/초수

장수들끼리의 모임이나 초수들끼리의 모임은 자칫 방향성이 잘못된 곳으로 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수(재수)/초수/초수의 스터디에서 초수 두 분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임하지 않는다면 장수생이 혼자 말하는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질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모둠 구성일 때 저는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8. 교육과정은 일단은 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교육과정 암기 싸움이었습니다. 작년에는 2015개정 교육과정을 열심히 외웠지만 정작 교육과정 암기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아서 시간낭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만나와서 올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올해도 2022개정 교육과정을 열심히 외운 결과 거의 11점(?)에 달하는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올해 많이 나왔으니 내년에는 또 안 나올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교육과정 리터러시가 없다는 것은 전문성의 문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교육과정이 암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미래의 교사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로 외우는 것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아 잊어먹지 않고 안전합니다. 까먹었을 때 다시 외우는 것은 교육과정에 시간을 오래 투자하게 되는 요인이 되므로, 노래로 꾸준히 반복해서 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6. 합격에 도움이 된 선생님과 강의/교재 활용 후기는? 심화서를 마르고 닳도록 봤습니다. 실제로 혈어서 누래질 만큼 봤습니다.

7. 희소/샘플러스 선생님(강사)께 감사의 편지 쓰기

임용이 두려워 다른 길을 걸을 뻔 했던 제가 위상팀 덕분에 교사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있게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8. 합격에 도움이 된 희소 학원 서비스는?

초수 때는 1, 2차 모두 장지연 교수님께서 짜주신 스터디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차 스터디는 전원 1차 합격을 하였고, 2차에서는 저희 스터디에서 경기 수석이 배출되어 저도 보고 배우면서 향후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수 때는 5월에 윤진 교수님께서 짜주신 스터디가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희 1차 스터디원들은 학원이 끝난 후 대부분의 날들을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1차를 전원 합격하였습니다. 주중에는 심심할 때마다 서로 오늘 공부하였던 내용 중 재미있고 새로운 내용들이 있다면 문제로 만들어 스터디원들에게 맞춰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 스터디는 막판에 적중을 여러 문제 하였습니다.

ex. 10월 14일 스터디원 : "퀴즈. 염료와 안료의 차이가 뭘까요?" -> 저의 답변 : (정확히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좀더 풀어서 정리해서 답변) "염료는 염색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전통염료로는 쪽풀이나 홍화잎꽃같은 자연식물재료를 물에 끓여 얻어낸 것이고 화학염료는 색소입니당 안료는 색광석에서 분해하여 물에담귀채취한 색분말?을 의미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염료는 물에 풀어사용하므로 녹는데 안료는 돌이라 물이나 알콜 기름같은 곳에는안녹아요!!" -> 스터디원 : "녹는다/녹지않는다(전색제가 필요하다)-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 A형5번㉠ 그대로 기출됨



8. 후배에게 전하는 메시지

저는 위상팀 교수님들 한분한분을 너무 좋아하고 믿었는데 믿은 만큼 적중으로 보상이 오더라고요. 최고의 강의를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두서 없고 긴 수강후기 읽고 좋은 영감(?)을 받으셔서 함께 교직에서 일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 해당 칸을 넘게 작성하셔도 무방하오니 자유롭게 작성 해 주세요~